신안군, 개체굴 양식 메카 된다

1004굴 양식학교 입교식 성료
전업농·귀어자 등 몰려 성황
소득보장형 개체굴 산업 육성

신안군이 개체굴 양식학교를 운영해 굴 양식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개체굴은 다발로 키우는 일반 덩이 굴과는 달리, 어린 종자부터 낱개로 개체를 양식해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굴이다.

신안군은 최근 40명의 입교생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학년도 제3기 '1004굴' 양식학교 입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입교생 모집 시 농어업인과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군민과 다른 지역의 신청자 등 120여명이 몰렸다.

개체굴 양식은 타 양식 품종보다 노동 강도가 적고 양식 소득률이 높아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신안 개체굴. 〈신안군 제공〉

특히 개체굴 양식은 가업승계가 가능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양식산업으로 이번 입교생은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전업 농어업인, 귀어자 등 다양하게 선발했다.

양식학교 교육은 종자 생산, 유통판매 등 개체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습자 중심의 현장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체계적인 이론 및 현장실습은 물론 신안군 개체굴 양식장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또 교육생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식시설 지원, 양식 어장 면허확보, 수협·어촌계 가입,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 활성화에 발맞춰 개체굴이라는 새로운 양식품종에 도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입교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신안군, 선진 개체굴 양식 산업화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공중에서 키운 미니 밤호박 본격 출하

300여 농가 80ha 재배
연간 200여억원 소득

해남군의 대표 특화작목인 공중재배 미니 밤호박 수확이 시작됐다.

한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해남산 미니 밤호박은 일반 미니 단호박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 C등이 풍부해 감기예방과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구운 밤호박, 찜, 라떼, 빵 등 다양한 상품으로도 가공, 판매되고 있다.

올해 일찍 수확하는 농가는 5월 중순부터, 일반 재배농가는 5월 하순부터 수확을 시작한다. 수확 후 일주일 가량의 후숙기간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해남산 미니 밤호박은 '밤 같이 단맛이 난다'고 해 이름붙인 '밤호박' 상표명이 전국적으로 사용될 만큼 단호박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특산물로 자리잡았다.

해남산 미니 밤호박은 시설하우스에서 그물망을 이용해 공중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열매가 땅에 닿지 않아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 미니 밤호박을 군 특화작목으로 지정,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관내 300여 농가, 80ha에서 미니 밤호박을 재배, 연간 2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해남군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을 통해 해남산 미니 밤호박에 저항성전분이 다량 함유돼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체중조절 효능에 관한 기능성식품 원료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곡면에서 밤호박을 재배하는 방금옥씨는 "올해는 기상호조에 의한 일조량 증가로 고품질의 맛 좋은 밤호박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의 대표 특화작목인 공중재배 미니 밤호박 수확 장면. 〈해남군 제공〉

"나는야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영암군, 제2기 양성과정 운영

영암군이 2022 제2기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교육은 지역에 거주하며 축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과 함께 초청특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축제 기획과 개발 실무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전문가 및 농촌관련학과·관광관련학과 교수, 지역문화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마을 관광 축제의 기본적인 이해와 운영사례 및 비교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 현장 교육, 토론 교육으로 진행한다.

마을 관광 축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음달 7일부터 운영되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영암군 문화관광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제1기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 축제전문가 양성 교육에는 31명이 배출됐으며 올해 수료생들과 함께 마을 관광 축제와 지역축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마을 관광 축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역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의 차별화와 내실화로 관광 산업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생대추 생산기술' 교육

영광군은 지난 16일 관내 사과대추 작목반(회장 노회선)의 생산기술 향상과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으로 '생대추 생산기술' 교육〈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사과대추 작목반 및 생산 농가 등이 참석했으며 이론과 현장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이론교육은 사과대추의 재배상 특성 및 개선점, 생육 단계별·시기별 중점 방제 병해충, 현장교육은 신초(맛있는 사과대추가 열리는 잎줄기) 정리에 대한 주제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호인 강사는 생대추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 시기에 신초를 잘 정리해 6월 중순에 개화한 꽃을 수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사과대추의 품질과 인지도를 타지역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 사과대추 작목반은 117ha, 38농가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참가

완도군, 수산물 우수성 홍보

완도군은 오는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해 완도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지난 18일 시작한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식품전시회이자 국내외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 업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완도군은 매년 참가하고 있다. 올해 군은 누리영어조합법인, 다시마전복수산, 완도사랑S&F, 해청정, 등 9개소 수출 기업과 함께 공동관 홍보 부스를 운영중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전복 차우더, 전복 감바스, 광어 죽 등 다양한 완도 수산 식품을 국내외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의 공동관 운영을 통해 수출 기업의 판로 개척에 힘을 싣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어르신 생활 속 안전 지킨다

목포시,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 운영

목포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속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2022년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을 운영 중이다.

남도안전학당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노출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강사가 경로당,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통안전 교육은 교통사고 현황, 사고실태, 보행수칙, 기초 교통법규 등을 안내한다.

생활안전 교육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 노인건강수칙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안전교육이 중단됐던 생활밀착형 교육인 남도안전학당을 재개하게 됐다. 내실있는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